<h1>나 혼자만 레벨업-13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ke09ec2391c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3화</p>  
<p>많은 시선이 몰리는 건 좋지 않다.</p>  
<p>시선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이 기현상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싫었다.</p>  
<p>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 했던가?</p>  
<p>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능력치를 올리고 싶었다.</p>  
<p>'병원을 나가는 데 문제 될 게 없기도 하고.'</p>  
<p>다행히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.</p>  
<p>언제라도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다.</p>  
<p>아니, 협회나 병원 쪽에서는 은근히 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했다.</p>  
<p>E급밖에 안 되는 헌터의 치료비로 많은 돈을 쓰기가 아까운 것이리라.</p>  
<p>S급 헌터들은 특혜 중 하나로 국가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진우와는 전혀 관련 없는, 아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.</p>  
<p>그러니 이쯤에서 병원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마침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있었으니까.</p>  
<p>"어디다 뒀더라..."</p>  
<p>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진우의 손에 뭔가가 딸려 나왔다.</p>  
<p>금빛으로 빛나는 열쇠였다.</p>  
<p>단순한 형태 때문에 얼핏 장신구로 보이기도 하는 열쇠.</p>  
<p>진우는 한참 동안 열쇠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퇴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린 간호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.</p>  
<p>"헉, 헉! 성진우 씨, 지금 퇴원하시는 건가요?"</p>  
<p>"네? 아, 네."</p>  
<p>담당 간호사였던 최유라였다.</p>  
<p>유라는 퇴원이라는 말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진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다.</p>  
<p>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었지만 짚이는 건 없었다.</p>  
<p>유라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.</p>  
<p>"연락처 좀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?"</p>  
<p>"연락처요?"</p>  
<p>"네... 괜찮으시면."</p>  
<p>나중에 따로 보낼 검사 결과 같은 게 있는 건가?</p>  
<p>진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메모지를 받아 들었다.</p>  
<p>그런데 유라에게 받은 것은 메모지뿐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빤히 쳐다보자 유라가 얼굴을 붉혔다.</p>  
<p>"왜, 왜요?"</p>  
<p>"저기... 펜이 없는데."</p>  
<p>"아, 아, 잠깐만요."</p>  
<p>급하게 오느라 생각 못 했는지 유라가 파닥거리며 돌아섰다.</p>  
<p>'어, 잠깐? 펜이라면...'</p>  
<p>생각도 잠시.</p>  
<p>어느 순간 볼펜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.</p>  
<p>인벤토리에 넣어 두었던 볼펜을 떠올리자 자동으로 나타난 것이다.</p>  
<p>한번 인벤토리에 넣었던 물건들은 생각만으로도 자유롭게 넣거나 찾아올 수 있었다.</p>  
<p>인벤토리의 편리한 기능이었다.</p>  
<p>손안을 확인한 진우가 유라를 불러 세웠다.</p>  
<p>"찾아보니 볼펜이 하나 있네요."</p>  
<p>"아, 그래요? 휴- 다행이다."</p>  
<p>유라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진우는 폰 번호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매번 이런 식이었다.</p>  
<p>랜덤 박스에서 나온 물건들은 나중에 꼭 한 번씩 쓸 일이 생겼다.</p>  
<p>비옷이 나왔을 땐 다음 날 비가 내렸고, 정수기 종이컵이 떨어지기 전날엔 유리컵이 나왔다.</p>  
<p>가끔은 반창고처럼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적절하게 쓰였다.</p>  
<p>"여기요."</p>  
<p>진우가 건네는 메모지를, 유라는 기쁜 얼굴로 받아 들었다.</p>  
<p>그러고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그럼 잘 부탁드릴게요."</p>  
<p>"아, 네.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"</p>  
<p>유라는 휙 뒤돌아서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다.</p>  
<p>진우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근데... 뭘 부탁한다는 걸까?'</p>  
<p>귀엽게 생긴 간호사가 인사성도 참 밝네.</p>  
<p>진우는 그런 생각과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헌터협회 건물이었다.</p>  
<p>헌터들의 폰은 특수한 기기를 쓰기 때문에 협회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.</p>  
<p>협회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말했다.</p>  
<p>"헌터님 폰은 2주 뒤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."</p>  
<p>"예?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?"</p>  
<p>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가지고 있던 폰은 지하 신전에서 신상에 쫓길 때 박살 나 버렸다.</p>  
<p>그런데 새 폰이 나오기까지 2주나 걸리다니.</p>  
<p>"급하게 폰을 쓰셔야 한다면 임시폰을 빌려 드릴 수도 있는데 이용료가 5만 원 정도 듭니다."</p>  
<p>5만 원... 사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데 드는 돈이 자그마치 5만 원씩이나.</p>  
<p>현재의 자금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 큰 액수였다.</p>  
<p>'어차피 딱히 연락 올 데도 없으니까.'</p>  
<p>협회에서는 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연락한다. 그러니 굳이 돈을 써 가며 임시 폰을 빌릴 이유는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그냥 기다릴게요."</p>  
<p>"알겠습니다. 새 기기는 나오는 즉시 자택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이로써 볼일은 끝났다.</p>  
<p>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일일 퀘스트는 진즉에 끝내놓았고, 협회에 들러 새로 쓸 폰을 신청하는 과정도 빠르게 끝났다.</p>  
<p>진우는 협회 건물을 빠져나오며 다시 금빛의 열쇠를 꺼냈다.</p>  
<p>'이제 이걸 알아볼 차롄가.'</p>  
<p>열쇠의 정보가 녹색 글자로 떠올랐다.</p>  
<p>[아이템: 던전의 열쇠]</p>  
<p>입수 난이도: E급</p>  
<p>종류: 열쇠</p>  
<p>인스턴트 던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. 지하철 합정역 3번 출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p>  
<p>일일퀘의 보상으로 받은 랜덤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.</p>  
<p>처음엔 웬 열쇠인가 했지만 입수 난이도가 뜨는 것을 보고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.</p>  
<p>병원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다.</p>  
<p>'인스턴트 던전의 입장 열쇠라...'</p>  
<p>인스턴트 던전이라고 해도 던전은 던전.</p>  
<p>던전이라면 아픈 기억이 많았다.</p>  
<p>E급 레이드에 참가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무려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적도 있었다.</p>  
<p>그때는 동료들이라도 있어서 살 수 있었지만...</p>  
<p>만약 이 열쇠로 던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꼼짝없이 혼자 돌아야 하는 것이다.</p>  
<p>고민 끝에 결정했다.</p>  
<p>'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면 별문제 없겠지.'</p>  
<p>여차하면 도망치면 되니까.</p>  
<p>요즘 매일 달리기를 10킬로씩 꾸준히 했더니 도망치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다.</p>  
<p>쿵, 쿵!</p>  
<p>"벽이... 생긴 건가?"</p>  
<p>보이지 않는 벽을 두드리고 바깥을 향해 소리 질러 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.</p>  
<p>사람들은 각자 제 갈 길을 분주히 오갈 뿐이었다.</p>  
<p>가끔 합정역 안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, 투명한 벽을 경계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사라졌다.</p>  
<p>아무래도 이곳과 저 너머는 다른 공간인 듯했다.</p>  
<p>진우가 억지로 힘을 써서 나가려고 하자 또다시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던전을 나갈 수 없습니다. 보스를 처치하거나 귀환석을 가지고 오십시오.]</p>  
<p>아까부터 같은 말뿐이었다.</p>  
<p>가지고 있던 던전의 열쇠는 3번 출구 안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사라졌고, 일이 틀어졌음을 느낀 진우가 급히 방향을 틀었을 땐 이미 앞이 막혀버린 상태였다.</p>  
<p>3번 출구 어딘가에 던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나 비밀 문 같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, 예상과는 달랐다.</p>  
<p>거기다 일반적인 던전과는 달리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했다.</p>  
<p>"던전과 다르다라..."</p>  
<p>진우는 한숨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밀림처럼 변해 버린 지하철역이었다.</p>  
<p>벽에는 넝쿨이 어지러이 뻗어 있고, 시체가 썩을 때 나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.</p>  
<p>멀리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것도 간간이 들려왔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합정역 근처 어딘가에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합정역 전체가 던전이 되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인벤토리에서 강철검을 꺼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김상식의 강철검]</p>  
<p>공격력 +10.</p>  
<p>뒤는 막혀 있고 어디 다른 데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.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킨 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.</p>  
<p>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기척은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.</p>  
<p>마수 중에는 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기척을 숨길 수 있는 놈들이 많았다.</p>  
<p>아니, 오히려 등급이 높지 않기에 기척을 숨기고 기습을 노리는 것일지도 모른다.</p>  
<p>화장실을 지나쳐 안쪽으로 들어가니 지하상가들이 나왔다.</p>  
<p>가게들은 낡고 부서져 폐허를 연상케 했다.</p>  
<p>희미한 형광등 조명 아래 폐허가 된 가게들과 인적 없는 통로를 보고 있으니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티딩, 티딩.</p>  
<p>형광등 몇 개는 수명을 다한 듯 불빛을 깜박였다.</p>  
<p>깨진 타일 위로 무성히 자란 잡초들을 밟으며 걸어가던 진우는 뭔가 께름칙한 기운을 느끼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사방이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.</p>  
<p>거기다 이 냄새.</p>  
<p>주변에서 동물이 죽어서 파리가 들끓을 때쯤 풍기는 지독한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던전 출입이 잦았던 진우에게는 낯설지 않은 냄새였다.</p>  
<p>'이 냄새는... 짐승형 마수다.'</p>  
<p>하지만 주위 어디서도 기척을 찾을 수 없었다.</p>  
<p>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숨어 있는 것처럼.</p>  
<p>'숨어서 기회를 엿보시겠다?'</p>  
<p>그렇다면 기회를 드려야겠지.</p>  
<p>진우는 일부러 돌아서서 등을 보였다.</p>  
<p>그리고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.</p>  
<p>짐승은 상대가 등을 보이면 덮쳐 오는 법이다.</p>  
<p>짐승형 마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.</p>  
<p>그렇게 세 발짝쯤 걸었을 때였다.</p>  
<p>와장창!</p>  
<p>뒤쪽에 있던 옷가게의 쇼윈도가 깨지며 뭔가가 튀어나왔다.</p>  
<p>그 뭔가는 지면을 밟고 착지한 뒤 곧바로 진우의 목덜미를 향해 뛰었다.</p>  
<p>"크릉!"</p>  
<p>미리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진우는 소리가 들림과 거의 동시에 검을 뒤쪽으로 크게 휘둘렀다.</p>  
<p>그야말로 반사적인 움직임!</p>  
<p>쉬익-!</p>  
<p>예리한 검날이 덤벼들던 짐승의 턱을 베었다.</p>  
<p>진우에게서 떨어진 놈이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었다.</p>  
<p>"키이이잉, 키잉!"</p>  
<p>붉은 털을 가진 커다란 늑대였다.</p>  
<p>주둥이가 잘려 나간 늑대는 고통스러운지 이리저리 몸을 비비며 몸부림쳤다.</p>  
<p>자세히 보니 페널티 존에서 봤었던 지네처럼 놈의 머리 위에도 이름이 떠 있었다.</p>  
<p>강철 이빨 라이칸.</p>  
<p>하지만 그때와 달리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 이름이었다.</p>  
<p>'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!'</p>  
<p>놈이 상처를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이 기회였다.</p>  
<p>진우는 몸을 날렸다.</p>  
<p>달려가 검을 강하게 내리치자 놈의 머리가 뎅겅 잘려 나갔다.</p>  
<p>"캐갱!"</p>  
<p>라이칸은 단말마를 내지르며 숨을 거두었다.</p>  
<p>[강철 이빨 라이칸을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"좋아!"</p>  
<p>그러나 해냈다는 기쁨도 잠시!</p>  
<p>쇼윈도 너머의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다른 라이칸 두 마리가 뛰쳐나왔다.</p>  
<p>아차, 동료가 있었나?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크르릉!"</p>  
<p>놈들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왔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흥분한 탓에 너무 세게 내리쳤는지, 바닥 깊숙이 박힌 검이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.</p>  
<p>'어딘가에 걸렸다.'</p>  
<p>그때 라이칸 하나가 진우의 얼굴을 노리며 뛰어올랐다.</p>  
<p>"이런!"</p>  
<p>진우가 목을 움츠렸다.</p>  
<p>진우의 머리 위를 지나친 라이칸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대가리를 처박았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놈의 이빨이 꽂히자 돌로 된 바닥에 금이 쫙쫙 갔다.</p>  
<p>'괜히 강철 이빨이 아니네.'</p>  
<p>하지만 감탄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.</p>  
<p>아직 다른 한 마리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검은 여전히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젠장!"</p>  
<p>하는 수 없이 검을 포기한 진우가 날아오는 라이칸을 향해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다.</p>  
<p>부웅!</p>  
<p>듣기에도 섬뜩한 바람 소리와 함께 주먹이 일자로 뻗어 나갔다.</p>  
<p>퍼걱!</p>  
<p>일격에 라이칸의 머리통이 터져 버렸다.</p>  
<p>머리를 잃은 라이칸 몸통은 천장에 부딪힌 후 사선을 그리며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혔다.</p>  
<p>쾅!</p>  
<p>"...?"</p>  
<p>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주먹을 쳐다보았다.</p>  
<p>예상치 못한 괴력이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